

진흥왕순수비건립의 사상사적 의미

박 초 룡

(이화여대 한국사 박사과정)

머리말

<眞興王巡狩碑(이하 순수비)>는 흔히 <北漢山新羅眞興王巡狩碑(이하 북한산비)>, <黃草嶺新羅眞興王巡狩碑(이하 황초령비)>, <摩雲嶺新羅眞興王巡狩碑(이하 마운령비)>, <昌寧新羅眞興王拓境碑(이하 창녕비)>의 4개 비석을 총칭하며, 그 성격은 진흥왕이 영토의 변경을 순행하고 세운 일종의 경계비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¹ 건립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창녕비를 제외한 3개의 비석이 진흥왕 29년(568)에 세워졌다고 보고 있다.²

그러나 이르게는 조선후기부터 발견되어 비문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에 비한다면 순수비에 관한 연구는 그리 풍부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2000년대 초반까지도 순수비를 독립된 주제로 다룬 연구는 소수였으며, 그나마도 대부분은 隨駕人名單에 집중하였다.³ 예컨대 大等の 분화 양상이라든가⁴ 창녕비에 나타나는 四方軍主의 존재,⁵ 또는 그간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던 국왕의 近侍職⁶ 등에 대한 분석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중고기 신라의 중앙집권체제 성립을 관등·관직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일환으로 수가인명단을 다루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碑의 건립목적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기사 부분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왔다. 이는 아마도 기사의 내용을 단순한 수사 정도로 여겼기 때문인 듯한데,⁷

¹ <순수비>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자인 노용필은 이상의 4개 비석을 모두 순수비로서 다루었다(노용필, 1996, 『신라 진흥왕순수비 연구』, 일조각). 그러나 <창녕비>의 경우, 진흥왕이 창녕에 순행한 사실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순수비로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세 비문에서 나타나는 순수비의 가장 큰 특징인 제기(“眞興太王及衆臣等巡狩圖之時記”“眞興太王巡狩觀境刊石銘記也”)가 없다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의 순수비라고 보기는 어렵다.

² 황초령비와 마운령비의 경우 연호와 일자가 기록되어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적는데 반해, 북한산비의 경우 이러한 기록이 없으며 『삼국사기』에는 진흥왕 15년에 국왕이 북한산을 순수했다고 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흥왕 29년 10월에 북한산주를 폐하고 설치한 남천군이 비문에 등장한다는 점에서(남천군주) 북한산비의 작성-건립 연대 역시 진흥왕 29년(568)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³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강만길, 1955, 「眞興王碑의 隨駕巨名研究; 黃草嶺碑와 昌寧碑」, 『사총』 1; 이문기, 1982, 「新羅 眞興王代の 臣僚組織에 대한 一考察」, 『大丘史學』20·21합,

⁴ 이기백, 1962, 「大等考」, 『역사학보』17·18합

⁵ 주보돈, 1988, 「신라 중고기의 郡司와 村司」, 『한국고대사연구』1

⁶ 이도학, 1992, 「摩雲嶺 眞興王巡狩碑의 近侍隨駕人에 관한 檢討」, 『新羅文化』9

⁷ 김철준, 1970, 「三國時代 禮俗과 儒敎思想」, 『대동문화연구』6·7합.

1990년대 이 문제를 지적하며 기사부분에 주목하여 비문에 담긴 정치사상을 분석하고 건립배경을 다룬 일련의 연구가 발표되었다.⁸ 한편 드물지만 순수비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면서 이 과정에서 순수비가 일부분 언급되었다.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에 발표된 논문 두 편에서는 『삼국사기』에 나타나는 삼국 국왕의 순행 횡수와 지역, 순행 전후의 정치 동향 분석을 통해 주로 삼국의 영역 확대과정, 지배방식의 변화를 논하였다.⁹

이러한 가운데 2000년대 후반부터 최근에 들어서 순수비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¹⁰ 특히 이 글과 관련해 주목할만한 점은 최근의 연구들이 순수비의 건립목적 재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순수비의 건립 배경과 성격에 대해 척경비라는 전통적 견해를 따르거나, 왕도정치이념을 교시하는 것으로 보거나¹¹ 고구려로부터 획득한 영토에 대한 고구려와의 암묵적 합의에 의한 영토 보증서라고¹² 설명해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대고구려관계를 의식한 대외과시용이었다거나¹³ 봉선의식의 상징물¹⁴ 내지는 산천제사의 기념물이었다고¹⁵ 보고 있다. 특히 후자의 두 연구는 산이라는 입비조건과 완전한 한문체라는 기록방식이 기존 신라비와의 차별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경청할만하며, 순수비가 의례의 상징이라는 논지 역시 참신하다. 이 글 역시 순수비가 상징물이라는 점, 의례의 일환으로 입비가 행해졌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순수비를 봉선의식이나 산천제사의 상징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순수비의 건립목적 재검토하기 위해서는 신라의 순수비 자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동시기 중국에서의 순수비 건립 사례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당시 신라가 대중국 교섭을 활발히 전개해가고 있었던 점과 중고기 신라의 중앙집권화 과정, 한화정책의 흐름 등을 고려할 때 보다 큰 맥락에서 순수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⁸ 노용필, 1990, 「昌寧 眞興王巡狩碑 建立의 政治的 背景과 그 目的 : 그 敎事部分의 判讀과 內容 分析을 中心으로」, 『한국사연구』70; 1993, 「진흥왕 북한산순수비 건립의 배경과 그 목적」, 『향토서울』; 1998, 「5장. 순수비문에 나타난 정치사상과 그 사회적 의의」, 앞의 책에 재수록.

⁹ 김영하, 1979, 「新羅時代 巡守의 性格」, 『민족문화연구』 14; 2002, 『韓國古代社會의 軍事와 政治』,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재수록; 신형식, 1981, 「巡幸을 통해본 三國時代의 王」, 『韓國學報』7-4

¹⁰ 김영하, 2008, 「일제시기의 진흥왕순수비론: '滿鮮'의 경역인식과 관련하여」, 『韓國古代史研究』52; 최영성, 2014, 「진흥왕순수비의 재검토」, 『民族文化』43

¹¹ 노용필, 1996, 앞의 책, 63, 163쪽.

¹² 강봉룡, 2004, 「순수비에 담긴 진흥왕의 꿈과 야망」, 『고대로부터의 통신』, 푸른역사.

¹³ 조범환, 2013, 「眞興王巡狩碑에 대한 몇 가지 疑問과 새로운 理解: <北漢山碑>·<黃草嶺碑>·<磨雲嶺碑>를 중심으로」, 『新羅史學報』27

¹⁴ 김태식, 2004, 「봉선대전, 그 기념물로서의 진흥왕 '순수비」, 『백산학보』68

¹⁵ 임평섭, 2014, 「신라의 산천제사와 진흥왕 순수비 입석 목적의 연관성: 북한산비를 중심으로 살펴본 巡狩 行적에서의 祀」, 『新羅文化』43

그동안 이러한 방식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신라 의례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이 중국식 예제가 통일을 전후한 시기에 도입되어 정비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¹⁶ 그러나 아래에서 상세히 다루게 되듯이 <순수비>가 순수의 상징적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는 『尙書(書經)』에 근거한 구절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중국에서 순수비 건립의 선례가 있었던 점을 생각할 때, <순수비>의 건립은 '순수 의례'의 일환이자 상징물로서 건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1장에서는 전통적 순수 관념의 기원과 중국의 순수비 건립 사례를 살펴보고, 2장에서는 중국에서 성립한 순수 관념, 순수 의 상징성이 신라에 도입되었는지의 여부를 <순수비>문의 재검토를 통해 밝힐 것이다. 이를 통해 3장에서는 <순수비>의 건립 목적이 무엇인지, <순수비> 건립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1. 순수의 기원과 순수비 건립의 사례

巡守 혹은 狩獵로도 표기되는 巡狩는 좁은 의미에서 천자가 국가 통치를 위해 각 지방을 돌아다니며 시찰하는 활동을 일컫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각국 제왕이 궁성을 떠나 활동하는 경우 전부를 지칭한다.¹⁷ 『삼국사기』에서 巡狩의 용례는 거의 찾아지지 않고,¹⁸ 주로 巡守, 狩獵으로 표기하고 있다. 넓은 범주에서 순수에 해당하는 용어로 순행(巡幸, 巡行), 巡, 행(行, 幸), 巡撫, 田, 牧, 獵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신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한 것은 순행 혹은 순무였던 듯하다. 순행은 巡이나 幸 등의 한 글자만 쓰는 경우도 빈번하다. 순무는 위무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고구려·백제에서 주로 보이는 전이나 목, 렫 등은 원래 순수에 사냥이나 군사 활동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순수의 범주 내에서 이해하는 것이다.¹⁹ 이렇게 다양한 표현 방식에서 알 수 있듯이 순수는 지방 시찰을 위한 실질적 통치 수단에서부터 제의를 위한 것, 유흥이나 군사훈련을 위한 것, 親征, 휴양(요양)을 위한 것 등 여러 가지 목적에서 행해졌다.

¹⁶ 나희라, 2003, 『신라의 국가제사』, 지식산업사; 채미하, 2008,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혜안이 대표적이다. 唐 高宗이 吉凶要禮를 하사하였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근거로 이때 중국식 예제가 본격 도입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최근 이루어진 신라 軍禮에 관한 연구에서는 순수비는 연구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채미하, 2010, 「신라의 軍禮 수용과 王權」, 『한국사연구』149.

¹⁷ 최진열, 2011, 『북위황제 순행과 호한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1쪽.

¹⁸ 『三國史記』 「新羅本紀」 奈解尼師今 32년 봄 2월조.

¹⁹ 원래 巡은 갑골문의 省자에서 유래된 것이며, 卜辭의 省에는 巡視, 田獵, 征伐의 뜻이 있다고 한다. 후에 省이 巡으로 변하고 여기에 사냥 수(狩)가 더해지면서 巡狩란 단어가 나타났다. 이것은 순수에 전렵과 무력정벌이 동반되었던 것을 보여준다. 이후 巡狩에서 巡守로 표기가 변화하는 것은 순수의 성격이 군사 중심에서 정치 위주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김영하, 2002, 『韓國古代社會의 軍事와 政治』,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11쪽.

『삼국사기』에는 삼국의 국왕들이 기원전부터 순행한 사실을 전하는데, 이는 앞으로 살펴볼 중국의 전통적 '순수' 개념이 들어오기 전에도 '국왕의 영토 시찰'이 현실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삼국사기』의 대부분 초기 순행 기록에서는 순행 영역이 왕도 주변이거나, 구체적인 지명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구체적 지명과 순행 기간이 제시되는 등 기록이 구체화되는 양상을 보인다.²⁰ 이것은 순행이 지방통치의 한 방식으로서 실효성을 갖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인 동시에 영토 확대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순행은 지방에 대한 중앙의 직접적 장악력이 확립되기 이전, 즉 지방관이 파견되기 전이나 일부 지역에만 지방관이 파견되던 시기에 국왕이 영토를 지배한다는 점을 가시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영역이 어느 정도 확정되고 중앙집권적 지방지배체제가 성립하면서 순행 기록이 감소하는 것은, 지방 지배 방식으로서의 순행의 필요성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논란은 있지만 일종의 지방관으로서 道使가 파견되는 5세기, 州郡의 설치 시작된 6세기 초 이후에 순행은 급격히 감소하는가?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6세기 중엽 진흥왕순수비에서 보이는 순수의 사례를 비롯해 후대에도 행해지고 있다. 이는 순행이 지방 지배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국왕의 정치 의례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전통적 순수 개념에 따르면 순수는 의례화된 절차와 제의를 통해 천자가 天地神祇로부터 지배정당성과 권위를 확인받고 민정시찰을 통해 이를 공표하는 것이었다.

한편 이렇게 순행이 삼국 모두에서 건국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사실을 생각하면 순수비 건립은 매우 특수한 사례임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고구려와 백제에서 순수비는 기록도 실체도 발견되지 않았고, 신라에서도 진흥왕 전후의 누구도 순수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²¹

그렇다면 이쯤에서 중국에서 전통적 순수의 개념은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순수의

²⁰ 삼국 각각의 순행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는 김영하, 2002, 앞의 책의 3장. 「삼국시대의 영역통제와 관리」를 참고.

²¹ 6세기 신라에서는 이전시기까지 출현하지 않던 비석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에 대해 주보돈은 외형이나 내용에서 고구려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하였다(주보돈, 2002, 『금석문과 신라사』, 지식산업사). 그러나 손환일과 이성배 등이 지적한 진흥왕 순수비에 보이는 서체의 변화를 비롯해 서(손환일, 2002, 「新羅 <眞興王巡狩碑>의 書體」, 『선사와 고대』17; 이성배, 2013, 「6세기 신라 眞興王巡狩碑의 立碑와 書藝的 考察; 書體의 同異를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65) 비의 형식, 비문 구성 등이 고구려비와의 연장선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또 최광식은 울진봉평신라비(蔚珍鳳坪新羅碑)를 궁성 밖에서 울령을 교시한 것으로 보아 일종의 순수비로 파악하기도 하였지만(최광식, 1994, 『고대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266쪽), 순수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이를 순수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절차는 어떠하였는지,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맹자』에 따르면 “천자가 諸侯[의 封國을] 돌아다니[면서 시찰하는]는 행위를 순수라고 한다. 순수는 지키는 곳을 돌아보며 시찰하는 것”²²이다. 이러한 순수의 시원은 기록에 따르면 堯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尙書(書經)』 「舜傳」에서는 요순의 순수를 전하고 있는데,²³ 순수 의례가 천자의 중요한 국정운영 수단이자 의무였음을 밝히고 있다. 『禮記』 「왕제」편은 『서경』에서 전하는 요순의 순수 고사에 근거하여 의례의 절차를 보다 상세히 전한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가. 해마다 2월에는 동쪽지방을 돌며 살펴보셨다. 태산에 이르러 제사[祭]를 지내고 차례로 산천을 제사[望] 지내셨다. 그리하고는 동쪽 제후들을 만나 철과 달을 맞추고 날짜를 바로잡으셨으며, 악률(樂律)과 도량형을 통일하시고 다섯 가지 예(五禮)와 다섯 가지 흠, 세 가지 비단, 두 가지 산 짐승, 한 가지 죽은 짐승 및 폐백을 정리하셨다. 다섯 가지 흠만은 일이 끝난 뒤 되돌려 주셨다. 5월에는 남쪽지방을 돌며 살피셨다. 형산(衡山)에 이르러 태산에서와 같은 예식을 행하셨다. 8월에는 서쪽지방을 돌며 살피시었다. 화산(華山)에 이르러 처음과 같이 행하셨다. 11월에는 북쪽 지방을 돌며 살피시었다. 항산(恒山)에 이르러 서쪽에서와 같이 예식을 행하셨다.(『書經』 「愚書」 舜傳)
- 나. 天子는 5년에 한번 巡守한다. 그해의 2월에 동쪽으로 순수하여 岱宗에 이르러 柴祭를 올리고 산천에 望祀한다. 제후를 접견하고 100세 된 자가 있는가를 물어서, 있으면 친히 가서 찾아본다. 太師에 명하여 詩를 모아 진열하게 하며 백성의 풍속을 본다. 시에 명하여 교역되는 상품을 바치게 해서 백성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살핀다. 심지가 음사하면 사벽한 것을 좋아하게 되기 때문이다. 典禮에 명하여 時月을 상고하여 날을 정하고, 律·禮·樂 제도를 같게 해서 이를 바로잡는다. 山川神祇의 제사를 거행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그것은 不敬이 된다. 불경한 자는 군국의 영지를 깎는다. 종교에 不順한 자가 있으면 불효가 된다. 불효한 자는 작위에서 물러나게 한다. 禮를 변경하고 樂을 바꾼 자는 복종하지 않는 것이 된다. 복종하지 않는 국군은 유형에 처한다. 제도와 의복을 고친 자는 배반한 것이 된다. 배반한 국군은 친다. 인민에게 공덕이 있는 자는 영지를 더 주고 작위를 올린다.(하락)(『禮記』 「王制」)

²² “天子適諸侯曰巡狩. 巡狩者巡所守也.” 『孟子』 「梁惠王章句」下.

²³ 순수는 『尙書(書經)』, 『禮記』, 『儀禮』, 『周禮』, 『春秋左傳』 등에서 비슷하게 언급되고 있는데, 특히 전한대 『상서』의 복원과정과 당의 대당개원례에서 순수 의례 절차를 설명하는데 『상서』를 경전적 근거로 삼고 있는 점은 순수에 관한 가장 중요한 경전이 『상서』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에 관해서는 홍승현, 2012, 「전한시기(前漢時期) 상서학(尙書學)의 출현과 변용」, 『中國學報』65; 박초롱, 2013, 「백제 사비시기(泗沘時期) 오제(五帝) 제사 시행과 그 의미」, 『한국사상사학』48을 참고.

위 내용을 살펴보면 천자는 5년에 한번 四仲月에 四方을 순행하는데, 먼저 산에 올라 하늘에 柴祭를 지내고 山川에 望祭를 지낸다. 그 후 해당 방위의 제후들을 만나서 알현을 받고, 예악을 정비하고 풍속을 살핀다. 혹 불효·불경한 자가 있으면 벌하고, 공덕에 따라 작위를 올려준다.

이때 사방은 천자의 지배영토 전역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산에서 지내는 하늘에 대한 시제와 산천에 대한 망제는 천자가 天下四方에 대한 지배권을 天神地祇로부터 공인받은 존재라는 점을 공표하는 행위로, 황제권에 정당성을 부여해 준다. 이러한 제의는 이후 진시황에 의해 封禪이라는 형태로 변형되어 새롭게 추가된다.²⁴ 순수 의례의 절차가 황제 지배권의 확인과 정당화에 직결되는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의 이후에 따르는 제후 접견, 律·禮·樂 정비, 민정 시찰과 상벌 수여 등은 지방에 대한 국가의 일률적 지배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며 민심을 확보해가는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 황제의 순수 사례를 살펴보면, 최초로 통일제국을 건설한 진시황은 순행을 제국 경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한의 무제, 북위의 태무제, 수의 문제와 양제, 당 태종 등도 비교적 순행으로 유명한 황제들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순수비의 건립 전통이 진시황에게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²⁵

『사기』 「진시황본기」와 封禪書에는 진시황이 즉위 다음해부터 다섯 차례의 순수를 행하고 이를 기념하는 여섯 개의 刻石을 여섯 개의 산에 세우도록 한 사실과 함께 그 각석문을 전하고 있다. 각석문의 내용은 대략 통일전쟁의 타당성, 국가 건설의 정당성, 시황의 업적에 대한 찬양, 법령을 비롯한 국가통일을 위한 장치 완비

²⁴ 봉선제의 정치적 성격에 대해서는 하워드 J. 웨슬러(임대희 譯), 2005, 『비단갈고 주옥같은 정치: 의례와 상징으로 본 당대정치사』, 고즈원, 364~375쪽을 참고.

²⁵ 진시황의 순수와 각석에 대해서는 김영하와 노용필 등이 순수 개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바 있다(김영하, 1979, 앞의 글; 노용필, 1996, 앞의 책). 최근 김태식이 진흥왕 순수를 진시황의 봉선과 직결시키기도 하였다(김태식, 2004, 「봉선대전, 그 기념물로서의 진흥왕 '순수비」, 『백산학보』 68). 그러나 김영하와 노용필의 경우 특별히 진흥왕의 순수와 진시황의 사례를 관련지어 설명한 것은 아니고 중국의 순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것이다. 그러나 이미 진흥왕이 국사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참고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모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편 김태식의 경우는 진시황의 봉선에 집중하면서 진흥왕의 순수가 道家的 方術에 근거한 봉선례였다고 보았다. 이는 진시황의 봉선 자체에 대한 오해가 있고, 진흥왕 순수비의 비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최근에는 진시황의 순수와 봉선이 도가적 방술, 불로장생에 대한 염원이었다는 전통적 해석에 대해 반발하는 여러 연구자들이 있고(문정희, 홍승현 등), 진흥왕순수비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王道의 德化이기 때문이다. 이상 기존의 연구들은 진시황 각석의 건립 사실만을 중요하게 취급하였을 뿐 진흥왕 순수비와 각석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에 대한 선언, 국가에 대한 충성의 권유 등으로 나누어진다.²⁶ 그 중에서도 특히 남아대 각석과 회계 각석에는 夷狄에 대한 직접 지배를 천명한 부분과 異俗 교정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이 점은 진흥왕 순수비에서 德化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부분과 연관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진시황 이후 중국에서 순행을 기념하는 비를 세우는 전통은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듯하다. 漢대에도 순행은 빈번하였고 특히 漢武帝는 진시황에 버금갈 정도로 잦은 순행에 나섰지만 기념비는 남기지 않았다. 그렇다면 진시황을 제외하고 순수비의 전통은 중국에 달리 없는 것일까.

이때 주목되는 것이 北魏의 太武帝나 文成帝 등이 세웠다고 전해지는 순수비이다. 북위의 황제가 순행 이후 비석을 세웠다는 기록은 『水經注』와 趙明誠의 『金石錄』에 보이지만, 실제 비석이 현전하는 예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도 문성제남순비는 일부 파손되기는 했지만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발굴되어 全文을 확인할 수 있다.

비문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題記에 해당하는 것으로 북위 문성제가 某日 某地를 순수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진흥왕 순수비의 기사부분에 비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순행 시 활쏘기와 의례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세 번째 부분은 수가인명단을 기재한 것인데, 고위관직-근시직-지방관 순으로 수가인을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비문의 구성은 그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순수비와 큰 틀에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지적할 점은 서체로, 진흥왕 순수비가 북위의 서체를 상당히 수용하였다는 사실이다.²⁷

신라와 북위의 교섭은 사료에서 확인된다. 신라에서는 지증왕 3년(경명 3년, 502년)과 9년(영평 원년, 508년)에 북위로 사신을 파견하였는데, 이를 즈음해서 신라에서 국호를 제정하고 중국식 왕호를 사용하며 지방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했다는 점은²⁸ 우연한 것이 아니다. 당시 북위는 20년에 걸친 漢化정책을 공인한 직후로서²⁹ 그 중심에는 孝文帝가 있었다. 효문제와 추진한 한화의 가장 중요한 조치들이³⁰ 신라와 교섭하기 직전인 494년~496년에 반포된 것을 볼 때, 지증왕대의 한화정책은 북위

²⁶ 홍승현, 2009, 『중국과 주변; 중국의 확대와 고대 중국인의 세계인식』, 혜안, 84쪽

²⁷ 손환일, 2002, 앞의 글; 이성배, 2013, 앞의 글.

²⁸ 『삼국사기』 「신라본기」4 지증마립간 4년 10월조에 국호와 중국식 왕호의 제정, 5년 4월조에 상복법의 제정, 6년 2월조에 주현의 설치와 최초의 군주 파견, 15년 시호법의 시작 등이 나타난다.

²⁹ 박한제, 1987, 「북위왕권과 호한체제; 북위사회의 변질과 관련하여」, 『진단학보』64

³⁰ 494년 胡服의 改易, 胡漢간 통혼의 장려, 胡姓을 漢姓으로 개정하는 조치가 있었고, 다음해에는 遺書 訪求 및 학교 창설 등의 文治策과 중국풍의 관제 개혁이 있었다. 496년에는 2년에 걸친 氏族제도(氏族分定)를 마무리 지었다.

와의 교섭을 그 배경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³¹

특히 신라에서 사신을 파견하는 시기에 宣武帝(재위: 499~514)가 순수를 행하고 순수비를 건립했다는 기록이 전해지는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라면 복위 황제들의 순수와 이를 기념하는 순수비에 대해 신라에서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경명 3년(지증왕 3년) 신라 사신이 파견된 해에 선무제가 순수를 행하고 순수비를 건립했던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³² 이를 고려할 때 진흥왕 순수비를 건립하면서 『사기』에서 전하는 진시황의 순수 기록과 복위의 순수비를 구체적인 모델로 삼았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경』이 순수를 논할 때 가장 중시되는 경전이었던 점과 순수비에서 사용된 순수의 표기가 『삼국사기』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고 주로 『서경』에서 사용되는 巡狩인 점, 비문 내에 『서경』에서 따온 구절들이 많은 점 등은 비문 작성의 경전적 근거가 『서경』이었을 것을 짐작하게 한다.

2. 순수비문 재검토

이 장에서는 가장 훼손이 덜한 마운령비를 중심으로 비문의 기사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³³

다. 1) 太昌元年 歲次 戊子 8월 21일 ㉠㉠ 진흥대왕이 ㉠㉠³⁴을 巡狩함을 돌에 새겨 기록하였다. 2) 무릇 純風이 일지 않으면 世道가 참됨에 어긋나고, 德化가 퍼지지 않으면 邪惡한 것이 서로 경쟁한다. 그러므로 제왕이 年號를 세움에 몸을 닦아 백성을 편안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朕은 歷數가 몸에 이르러 위로는 太祖의 기틀을 이어 받아 왕위를 계승하여, 몸을 조심하며 스스로 삼가하나 하늘의 도리를 어길까 두렵다. 또 하늘의 은혜를 입어 운수를 열어 보여주며, 명명한 가운데 神祇에 감응되어 符命에 應하고 썸대에 적합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사방으로 영토를 개척하여 널리 백성과 토지를 획득하니, 이웃나라가 신의를 맹세하고 和使가 서로 통하여 온다. 3) 아래로 스스로 헤아려 新古黎庶를 撫育하였으나 오히려 말하기를 왕도의 德化가 고루 미치지 아니하고 은혜가 베풀어짐이 있지 않다고 한다. 4) 이에 戊子年 가을 8월에 管境을 巡狩하여 민심을 살펴서 위로하고 물건을 내려주고자 한다. 만약 충성과 신의와 정성이 있거나, 재주가 뛰어나고 재난의 機微를 살피고, 적에게 용감하고 싸움에 강하며, 나라를

³¹ 이정숙, 2012, 『신라 중고기 정치사회 연구』, 해안, 148-149쪽

³² 『魏書』 「宣武帝本紀」 경명 3년 9월조.

³³ 판독문은 국립중앙박물관, 2010, 『금석문자료 ①삼국시대』, 국립중앙박물관을 따랐고, 해석문은 노중국,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Ⅱ,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를 크게 참고하였으나, 일부 필자의 견해에 따라 수정한 부분이 있다.

³⁴ 황초령비에 따라 管境으로 본다.

위해 충절을 다한 功이 있는 무리에게는 爵과 邑을 상으로 더하여 주고 功勳을 표창하고자 한다. 5) 수레를 타고 나가 10월 2일 癸亥에 이르러 向涉是達非里 ... 인하여 변계에서 諭하였다.

마운령비의 기사부분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³⁵ 첫 번째는 사료 [다]-1)로 진흥왕의 순수를 기록한다는, 이 비의 題記에 해당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료 [다]-2)에서 4)까지로 순수의 배경과 목적을 밝히고 있는 부분이다. 세 번째는 사료 [다]-5)로 引駕에 해당한다. 네 번째는 여기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사료 [다]에 이어지는 것으로 수가인명단부분이다. 이러한 구성은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은 황초령비뿐만 아니라 북한산비에서도 나타난다. 이를 염두에 두고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먼저 1)에서 눈에 띄는 것은 巡狩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巡狩라는 표기 방식은 『삼국사기』 내 신라 순수 관련 기사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고³⁶ 巡이나 幸, 巡幸, 巡撫가 사용되었다. 이 점은 1)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과 함께 고려해보면 진흥왕순수비가 중국의 순수 개념을 인정한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巡狩라는 표기는 경서류에서는 『서경』, 『맹자』, 『한원』 등에서 보이고 사서류에서는 『사기』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³⁷

두 번째는 2)은 본격적인 기사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각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純風이란 純美之風의 줄임말로 仁風을 말하는 것이다.³⁸ 덕화가 퍼지지 않으면 邪惡함이 경쟁한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샷되고 악한 것[邪]과 덕화의 대비, 덕화에 대한 강조는 3)에서도 다시 드러난다. 3)은 이 비의 건립목적은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다.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보다 자세히 논할 것이다.

세 번째는 『서경』과 『논어』 『사기』 등에서 빌려온 여러 표현들이다. 예컨대 “제왕이...몸을 닦아 백성을 편안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구절이나 “역수가 몸에 이르러” “하늘의 도리(건도)” “신기에 감응하고” “사방으로 영토를 개척하여” 黎庶등은 모두 『논어』, 『서경』, 『사기』 등에서 언급된 표현들이다.³⁹ 특히 『상서』는 『상서』에서 기록한 순수 의례가 여타의 문헌에서 재인용될 뿐만 아니라, 중국 예제의 완성체로 평가받는 당의 대당개원례에서 순수 의례 절차를 설명하면서 경전적 근거로 삼고

³⁵ 본문의 번호는 내용 전개의 편의를 위해 필자가 임의로 부여한 것이다.

³⁶ 신라의 순수관계기사 23건 중 순수비를 제외하고는 『삼국사기』 「신라본기」 내해이사금 32년 봄 2월조에 한차례 등장하고 있다.

³⁷ 그에 반해 『예기』와 『한서』에서는 巡守가 더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 같다.

³⁸ 『晉書』 「樂志」 宗廟歌詩 歌成帝

³⁹ 김철준, 1970, 「三國時代 禮俗과 儒敎思想」, 『대동문화연구』6·7합; 노용필, 앞의 책, 130-141.

있다는 점에서,⁴⁰ 순수에 관한 가장 중요한 경전이었음이 주목된다.

네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太祖의 기틀을 이어받”았다는 표현이다. 이때 태조는 신라의 문헌과 금석문을 통틀어 현전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용례이다. 시조가 태조와 유사하게 쓰이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둘은 다른 것이다.⁴¹ 태조는 단순한 수사의 차용일 뿐이라고 본 견해가 있고,⁴² 태조의 성립은 五廟制의 始定 이후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⁴³ 순수비 건립 이전에 나라의 역사를 편찬하도록 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진흥왕은 10년(549)에 거칠부에게 명해 국사를 편찬하게 하였는데, 이 시기 역사서 편찬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왕계를 정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진흥왕순수비의 태조는 이후에 보이는 태조의 용례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본다.

이상의 네 가지 점을 살펴보면 진흥왕순수비는 중국의 순수 개념을 도입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순수 의례 절차도 행해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하에서는 이 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앞서 『서경』과 『예기』에서 보았듯이 순수를 행할 때 단순히 지방 영토를 시찰할 뿐 아니라 제후접견, 律·禮·樂 정비, 민정 시찰과 상벌 수여 등의 행위가 이어진다. 이를 순수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비문 내에 “만약 충성과 신의와 정성이 있거나, 재주가 뛰어나고 재난의 機微를 살피고, 적에게 용감하고 싸움에 강하며, 나라를 위해 충절을 다한 功이 있는 무리에게는 爵과 鬩을 상으로 더하여 주고 功勳을 표창하고자 한다”는 구절이 있고, 수가인명단에서 제후접견에 비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⁴⁴ 또 『삼국사기』 진흥왕 16년 11월조에는 10월의 북한산 순수 이후 위

⁴⁰ 『通典』 권118 開元禮纂類13 吉10 考制度조. 자세한 내용은 각주 47)을 참고.

⁴¹ 前漢 禮學의 대가인 魏徵(魏玄成)은 태조를 왕 혹은 황제의 경우 受命之者로, 제후의 경우 始封之君으로 보았으며, 후한대 정현은 시조는 感神靈而生적 존재로, 태조는 始封之君으로 보았다. 이문기, 1999, 「신라 김씨 왕실의 소호금천씨 출자관념의 표방과 변화」, 『역사교육논집』23·24습.

⁴² 김철준, 1970, 앞의 글,

⁴³ 채미하, 2008, 앞의 책,

⁴⁴ 대당개원례에서는 황제의 순행 절차를 『서경』의 순전을 바탕으로(考制度) 상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황제는 출궁 전에 먼저 태묘에 고하고(皇帝巡狩告園丘), 황제가 통과할 지역에 있는 모든 산천에 제사하였다. 그리고 방문예정지의 사직 선대제왕 명신 등에게 제사하였다. 태산에는 원구단을 세우고 호천상제에게 황제의 도착을 알리기 위해 번제를 행했다(燔柴告至). 황제가 도착하기 전에 제의에 참여하는 집행자와 관리들은 모두 정해진 기간 동안 근신하였다. 제사 자체는 동지의 원구단 제사와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이것이 끝나면 황제는 어가를 돌려 大次로 돌아왔다. 다음날 산천에게 망제를 지냈다(望秩於山川). 이 제사는 관리의 攝祭였다. 다음날 황제는 동방의 제후들을 알현하였는데(肆觀東后), 실제로는 그 관할 구역의 동쪽 지역에 있는 지방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리고 다음날에는 左右丞相을 파견하여 지방 행정과 민간의 상황을 조사 평가하여 황제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통치의 좋고 나쁨에 따라

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조치가 행해졌던 사실을 전한다. 순행로에 해당하는 주군의 1년간 납세를 면제하고 죄수들의 사면을 명한 것이다.

이렇게 경서에서 순수의 절차로서 서술한 民에 대한 시혜 조치와 功勳 포상이 표명되고 또 실제 행해졌던 것을 보면 이때의 순수가 의례의 관점에서 행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전 연구들에서는 전통적인 순수가 정치적 요소와 제의적 요소의 결합이라고 할 때 진흥왕의 순수는 정치적 요소만 갖고 있었다고 파악하였다.⁴⁵ 이를 따른다면 여타의 순수와 진흥왕대 순수비를 건립한 순수의 차별성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산비에서 제의의 존재와 마운령비에서 그 시행을 주관했을 것으로 보이는 인물(貞人)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시기 진흥왕의 순수는 제의를 동반한 전통적 순수 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북한산비의 2번째 열에는 高祀西嶽이라는 구절이 등장한다. 마멸된 글자 嶽을 嶽으로 읽는 견해도 있는데(허흥식), 이렇게 본다면 이 구절은 서악에 올라 제사(祀)했다 정도로 해석될 것이다. 또 마운령비의 수가인명단에서 기존의 많은 연구자들이 占人 등으로 판독한 부분은 貞자로 읽을 수 있으며, 제사와 관련된 업무를 주관한 인물로 추정할 수 있다.⁴⁶ 이에 대해 최근 순수비는 산천제사 이후 그 상징물로서 건립되었다는 연구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저자 스스로도 지적하였듯 마운령비와 황초령비의 경우 북한산비에 비해 비문이 온전히 남아있음에도 산에서 국왕이 親祀를 행했음을 암시할 만한 구절이 보이지 않는다.⁴⁷ 또, 북한산의 경우 백제에서의 제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산천제사의 제장으로 볼 수 있지만, 마운령과 황초령이 산천제사의 祭場이었을지는 의문스럽다. 세 비석은 비문의 구성과 문장이 유사하고, 비석의 외형적 특징 역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범주에서 파악해야 하는데, 산천제사로는 이를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무엇보다 이 비석이 산천에서의 국왕 친사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그 내용을 서술했을 것이다. 따라서 '高祀西嶽'은 『서경』 『예기』 『사기』 등에서 '순수에서 천자가 산에 올라 燔柴한 것'에 비견하여 순수 절차의 일부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하리라 본

상벌을 행했다. 황제가 남·서·북쪽을 순수할 때 동일한 과정을 되풀이 하도록 했다. (『통전』 권118 개원례찬류13 길례10)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동방의 제후들을 알현하였는데, 실제로는 그 관할 구역의 지방관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다.

⁴⁵ 김영하, 1979, 앞의 글. 이러한 견해는 최근까지도 이어져 왔는데, 이는 신라에서 중국식 예제의 도입은 당고종으로부터 길흥요례를 전해 받은 이후, 즉 통일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주류의 견해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된다(나희라, 2003, 앞의 책; 채미하, 2008, 앞의 책). 여기에서 지증왕 연간에 중국식 예제에 따라 대중소사를 편재하였을 것이라고 본 신종원의 견해는 다시 음미할만하다. 신종원, 1984, 「三國史記 祭祀志 研究; 新羅 祀典의 沿革·內容·意義를 중심으로」, 『史學研究』38.

⁴⁶ 이도학, 1992, 앞의 글.

⁴⁷ 임평섭, 2014, 앞의 글, 84쪽.

다.

3. 순수비 건립의 목적과 의미

순수비에서는 순수의 배경과 목적을 “아래로 스스로 헤아려 新古黎庶를 撫育하였으나 오히려 말하기를 왕도의 德化가 고루 미치지 아니하고 은혜가 베풀어짐이 있지 않다고 한다. 이에 (중략) 관경을 순수하여 민심을 살피서 위로하고 물건을 내려 주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新古의 백성(黎庶)을 무육하였으나 왕도의 덕화가 미치지 않았다”고 하여 국왕의 덕화를 강조했다는 것과 순수를 통해 민심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진시황 각석과 북위의 순수비문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아래에 제시한 것은 진시황의 순수에 관한 여섯 개의 각석 중 瑯琊臺刻石과 會稽刻石이다. 각석문의 내용은 대략 통일전쟁의 타당성, 국가 건설의 정당성, 시황의 업적에 대한 찬양, 법령을 비롯한 국가통일을 위한 장치 완비에 대한 선언, 국가에 대한 충성의 권유로 나누어볼 수 있다.

라. “28년에 황제께서 처음으로 황제에 즉위하자(중략) 동쪽 땅을 순무하시고 군사들을 살펴보셨다. 大事가 다 끝나자 해안지역까지 왕림하셨다. (중략) 四時의 변화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오직 황제이시니, 異俗을 바로잡고자 산을 넘고 물을 건너셨으며, 백성들을 가엾게 여겨 아침이나 저녁이나 게으름피지 않으시고, 의혹을 제거하고 법령을 제정하니 백성들이 모두 법으로 금한 일을 피할 줄 알게 되었다. (중략) 황제께서 현명하심으로 사방을 두루 살피시니, 존귀한 사람이나 비천한 사람이나 모두 자신의 분수를 지키며, 간교하고 사악함을 용납하지 않고 모두 忠貞과 선량함을 힘써 구했다. (중략) 황제의 덕이 四極까지 안정시켰다. 난리를 일으킨 자들을 토벌해 해악을 제거하고 이로움을 일으켜서 복을 이루셨다. 농번기에는 노역을 줄여주니 모든 산업이 번성했으며, 백성들이 편안해지니 무기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六親이 서로 의지하며 보살피니 마침내 도적이 없어졌다. 백성들이 모두 교화를 기쁘게 받들며 법령과 제도를 다 이해했다. 천지사방이 모두 황제의 영토이니, (하략)⁴⁸

마. 남녀의 부정함을 방지하고 음란함을 금지하니 남녀가 모두 깨끗하고 진실하게 되었다. (중략) 풍속을 크게 다스리고 닦으니 천하가 교화되고 모두가 덕화를 입게 되었다.⁴⁹

이 두 각석이 세워진 지역은 모두 진시황의 통일 이전에는 소위 夷狄의 거주지로 인식되어왔던 곳으로 새로 편입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순수비의 건립

⁴⁸ 『사기』 권6 「진시황본기」

⁴⁹ 위와 같음.

지역과 유사한 면이 있는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夷狄에 대한 직접 지배를 명확하게 천명하고 異俗 교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료 [라]는 진시황이 동쪽으로 낭야 지역을 순수하고 낭야대에 세운 각석이다. 낭야대 각석은 여섯 개의 각석 중 유일하게 '異俗'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낭야 지역은 산둥반도에 위치하여 동이의 거주지로 이적의 옛 풍습이 잔존하는 지역이었다. 한편 사료 [마]는 회계 지역 순행 후 세운 각석의 내용 중 일부이다. 여기서 남녀의 부정함, 음란함으로 표현된 회계의 풍속은 실제로 그러하였다기보다는 이속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한다.⁵⁰ 회계 역시 초가 월을 멸망시킨 후 영토 내로 편입하였다가 진시황에 의해 진에 편입된 전통적인 蠻夷의 땅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중국과는 다른 이적의 풍속이 만연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진시황의 각석은 이러한 이속을 교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진시황 각석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이러한 異俗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고대 중국인들에게 이적은 분리되어야 하는 존재였다. 그러나 통일과 함께 등장한 황제 지배체제는 땅에는 사방의 경계가 없다[地無四方]라는 개념 하에 거대한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내었고 그 안에서는 화이의 구별 없이 황제의 백성만이 존재하게 되었다 [民無異國]. 이러한 가운데 등장한 이속교정의 문제는 각기 종족 내의 질서 대신 秦 제국의 법에 의한 일률적 지배를 행하기 위함이었다.⁵¹

바. 문성제남순비. 화평 2년(461), 신축년 삼월 丁巳朔에□, 황제께서 남순하셨다. 정주부터 업도까지 관내 군국을 지나가셨다. 衡水의 물가에서 禊를 행하셨다. 廣平의 들에서 활을 쏘셨다. 이때 宋이 사자를 보내 □□를 경축하였고, 聘問의 義를 닦고 殊方の □□를 바칠 것을 아뢰었다. □□의 舞를 추게 했고, 악기를 이용하는 음악을 연주하게 하셨다. 음악이 끝나자 예도 끝났다. 황제의 공덕을 칭송하는 소리가 있었고, 野夫에게는 擊壤의 즐거움이 있었다. 흥안 2년(453)에 일찍이 이 산에서 활을 쏘셨다. 다시 安南將軍 南鄭公 毛□仁과 寧南前將軍 魯陽侯 韓道仁, 내[아]□종 [등 수]백인이 모두 활을 쏘니 산 너머 수 丈이나 날아갔다. □활을 쏘았다. (이하 수가인명단은 생략)⁵²

사료 [바]는 문성제남순비의 기사부분이다. [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성제가 461년 정주에서 업까지를 순행하고 활쏘기를 했던 것을 기념하며, 453년의 순행과 활쏘기도 함께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문성제는 461년의 순수 중에 위수 물가에서 계례를 행하고 활을 쏘았는데, 이때 송에서 사신을 보내 왔으며, 樂舞를 행하

⁵⁰ 기록에 따르면 남녀간 음란한 행위가 만연한 곳은 薊, 衛, 趙 지역 등이며 회계지역은 음란함과는 거리가 멀다고 한다. 홍승현, 2006, 앞의 책, 85쪽.

⁵¹ 홍승현, 2006, 앞의 책, 90-95쪽.

⁵² 번역은 최진열, 앞의 책, 544쪽을 따랐다.

였다. 그리고 황제의 공덕을 칭송하였고, 野夫에게는 擊壤의 즐거움이 있었다고 표현하였는데, 이때 격양은 태평성세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송사신의 내방과 함께 안팎으로 펼쳐진 황제의 덕, 황제의 위상을 강조한 것으로, 이 비문은 단순히 황제의 순수와 활쏘기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문성제의 통치를 칭송·수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왜 문성제는 순수비를 세웠을까? 비석이 세워진 지역을 살펴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실물이 전해지는 북위 황제의 순수비는 <태무제동순비(437)>와 <문성제남순비(461)>로 각각 河北省 保定市 易縣과 山西省 大同市 靈丘縣에서 발견되었는데, 두 지역 모두 전통적으로 '河北'에 속한다. 북위에서 하북은 오늘날의 하북성·하남성 북부·산둥성 북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북위 시기에는 정주·기주·상주 등이 치소로 설치되어 있었다. 이 지역은 호인거주지와 대비되는 전통적인 漢地로써 도무제 때 점령된 이후(397)에도 북위의 통치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북은 남쪽으로의 영토 확장을 위한 병참기지로서의 군사적·경제적 가치에서 뿐만 아니라 중원왕조의 상징성과 황제 권위의 정당성 획득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했기 때문에, 하북에 대한 안정적 지배는 북위초의 최대 과제였다.⁵³ 이 지역에 대한 순행은 태무제~문성제 연간(423~470)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는 하북지배가 본 궤도에 올랐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자, 북위 황제가 하북의 지배자임을 백성에게 과시했던 절차라고 평가되고 있다.⁵⁴

그러나 문성제때까지도 기주와 상주 등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북위 지배에 반감을 가진 부류들이 주도하는 소요가 계속되었다는⁵⁵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북위의 황제가 하북의 지배자라는 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종족적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한인들에게 문성제의 덕을 강조함으로써 황제권의 정당성을 밝히고 호한의 융합을 추구하였다고 생각된다. 樂舞가 중시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⁵⁶ 그리고 태무제동순비가 건립된 보정시 이현은 중원으로의 관문에 해당하고, 문성제남순비가 건립된 지역은 수도 평성에서 하북으로 가는 교통의 요충지로, 두 지역 모두 '중원으로의 진입'이라는 상징성을 갖는 지역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비의 건립은 단순히 이 지역 한인들을 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위의 황제가 곧 중화의 황제임을 강력하게 표명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최초의 통일제국을 건설하면서 진시황이 직면했던 과제, 즉 이질적 질서 아래에 있던 민들을 일률적 지배 아래에 두는 것과 북위의 태무제와 문성제가 전통

⁵³ 김성희, 2006, 「북위의 河北 지배와 그 지향」, 이화여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쪽.

⁵⁴ 최진열, 앞의 책, 163~175쪽.

⁵⁵ 김성희, 2006, 앞의 글, 38쪽.

⁵⁶ 이성원, 2007, 「고대 중국의 악과 사회통합성」,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적 한지를 안정적 지배 아래 두어야 했던 상황은 통일 전 최대의 영토를 지배하게 된 진흥왕이 맞이한 상황이기도 하였다.⁵⁷ 북한산이 위치한 북한산주(남천군)는 오랫동안 백제의 시발점이자 중심지로서 존재해왔고, 고구려와의 각축 속에서 백제·고구려 문화가 깊숙이 자리한 곳이었다. 마운령비와 황초령비가 건립된 비열홀주는 원래 옥저가 자리하고 있던 곳이었으나 <광개토왕비>에 기록되었듯 이른 시기부터 고구려에 복속되어 고구려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지역이었다. 실제 비열홀주의 치폐가 반복되는 것을 이 지역에 대한 고구려와 예인의 탈환 시도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기도 하다.⁵⁸ 이렇게 이질적인 지역을 신라가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힘뿐만 아니라 지배정당성을 뒷받침할 논리가 필요했을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⁵⁹ 순수비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신라의 독자적 천하관을 보여줌으로써 고구려에 대한 경계심과 우월성을 과시하였다고 보았다. 즉 비 서두의 진흥‘대왕’이라는 칭호, 朕을 자칭한 점, “이웃나라가 신의를 맹세하고 화사가 서로 통하여 온다”나 “사방으로 영토를 개척하였다”는 표현 등에서 신라의 독자적 천하관이 드러난다고 본 것이다. 한편 대내적으로는 마운령비와 황초령비에서 『서경』과 『논어』에 근거한 구절들이 왕도정치이념을 표방하였다고 보았다. 예컨대 스스로 몸을 닦아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라든가 덕화를 강조한다든가, 충성과 신의와 정성에 대한 강조가 왕도정치를 표방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산비에서는 약간 차이를 보여서 왕도를 이야기하면서도 패도를 논하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패도를 논한 것은 북진의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한다.⁶⁰ 그러나 북한산비에서도 “文을 세워 크게 人民을 얻는다[建文大得人民]”는 표현이 등장하고 마운령·황초령비와 마찬가지로 민심 위무에 관한 내용과 공훈에 따라 포상할 것을 논하는 점은 결국 세계의 비에서 가장 강조하고 기대한 점이 덕화로서 민심을 확보하는 것과 이를 통해 새로 복속된 지역을 ‘신라’로 만드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 논리로서 유교의 왕도정치이념을 택한 것이다.⁶¹

마운령비에 보이는 “百姓, 獲民, 新古黎庶, 民心”이라는 표현이 갖는 의미는 올진 봉평신라비(법흥왕 11년(524), 이하 <봉평비>)의 ‘奴人’과 비교해보면 단적으로 드러

⁵⁷ 『사기』를 참고했으리라 여겨지는 국사의 편찬 이후에 진흥왕 순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시사적이다.

⁵⁸ 노용필, 앞의 책, 63쪽.

⁵⁹ 마운령비와 황초령비에 대한 해석은 위의 책, 162-163쪽에, 북한산비에 대한 해석은 54-55쪽에 정리되어 있다.

⁶⁰ 노용필, 앞의 책, 54쪽.

⁶¹ 『서경』이 비문 작성의 근거가 되었던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서경』에서는 천명사상이 강조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맹자의 민본사상의 기초적 모습이 이미 『서경』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본다(김승혜, 1990, 『原始儒敎: 論語·孟子·荀子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 민음사).

난다. 봉평비에 보이는 奴人이나 노인법은 6세기 전반 신라가 새로 영토로 편입한 주민들을 국가의 公民과 차별했음을 전해주는 자료로 크게 주목을 받아 왔다.⁶² 그런데 진흥왕대 새로 획득된 지역의 피지배층과 비교할 때, (실제 처우에서는 차별이 존재할지라도) 순수비에서는 이들을 국왕의 公民으로 인식하고 그 지배권한이 국왕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립간대 在地세력을 통한 간접지배의 형태에서 5세기 후반부터 道使를 파견하면서 지방에 대한 중앙의 장악력을 증대시켜 가고, 지증왕 6년(505)에 '新定州郡縣'으로 지방을 직접지배하게 되는 지방지배방식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⁶³

이러한 변화는 율령의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율령은 예제와 밀접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보다 큰 구도에서 보면 신라가 중앙집권적 국가 사회통합을 위한 예제를 정비해가는 과정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증왕대부터 祀典의 정비 가능성이 찾아지고⁶⁴ 진흥왕대 우륵의 귀부와 음악에 대한 정비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은⁶⁵ 이를 뒷받침한다 할 것이다. 여기서는 이 문제를 미처 상세히 다루지 못했는데, 이는 추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맺음말

이상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이 글은 왜 진흥왕은 순수비를 건립하였는가라는 의문에서 시작하였다. 진흥왕 이전에도 삼국의 국왕들은 순수를 행했으나 순수비를 건립하였다는 기록도 현전하는 비문도 없다. 또 순수비의 형식은 이전의 신라비나 고구려비에서 예를 찾을 수 없는 것이었다.

2장에서는 중국에서 순수 의례가 성립하는 과정과 순수비 건립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신라에서 순수비를 건립할 당시 진시황의 순수 이후 건립된 각석과 북위의 순수비를 참고했을 것으로 보았다. 또 순수 의례의 근거로서 자주 제시되는 서경이 진흥왕순수비문 작성에 중요 자료가 되었으리라 보았다. 3장에서는 중국의 순수 개념을 수용한 상태에서 진흥왕의 순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순수비의 紀事부분을 순수 의례라는 관점에서 재검토해보았다. 이를 통해 신라에서도 순수시제의 행해졌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4장에서는 진흥왕의 순수가 갖는 사회-사상적

⁶² 전덕재, 2000, 「6세기 초반 신라 6부의 성격과 지배구조」, 『韓國古代史研究』17

⁶³ 이상 신라의 지방지배 방식의 변화는 주보돈, 1997, 「6세기 신라 지방통치체제의 정비과정」, 『한국고대사연구』11; 전덕재, 2003, 「신라의 왕경과 지방, 넘을 수 없는 경계」, 『역사비평』65; 주보돈, 마립간시대 신라의 지방통치 이미란, 2012, 「6세기 전후 신라 道使의 파견과 지방의 출현 과정」, 『역사와 경계』85 등을 참고.

⁶⁴ 신종원, 1987, 앞의 글.

⁶⁵ 이에 대해서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흥왕 12년 3월조와 13년조의 우륵의 귀부와 음악에 대한 우대를 예약정비의 일환으로 이해하는 이정숙의 견해를 참고할 만하다. 이정숙, 앞의 책, 49-54쪽.

의미를 밝혀보고자 했다. 순수비가 서경에 근거한 왕도정치 이념을 표방한 이유를 지방지배체제의 변화와 연관지어 해석하였다. 덕화로 민심을 획득하려 한 것에는 마립간기 간접지배 아래에 있던 피지배층을 6세기에는 국왕의 公民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왜 중국의 순수 개념에 근거하여 순수를 행하고 비문을 작성하였는지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다. 중국의 순수 개념에 따르면 순수는 제의를 통해 천자가 권위를 확인 받고 민정시찰을 통해 지배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신라는 새로 확보된 지역과 민에 대하여 국왕 지배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보편적인 논리로서 중국의 순수를 차용한 것이었다. 실제 이러한 이념은 순수 의례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공표되었을 것이다. 순수비는 이러한 순수 의례의 최종결과물이자 상징으로서 건립되었다.

참고문헌

사료

『三國史記』

『通典』開元禮纂類

『史記』「秦始皇本紀」, 「封禪書」

『魏書』

『書經』

<울진봉평비><포항중성리비><마운령비><황초령비><북한산비><창녕비>
한국고대사회연구소 編,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Ⅱ,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2010, 『금석문자료 ①삼국시대』, 국립중앙박물관

연구서

김승혜, 1990, 『原始儒敎 : 論語·孟子·荀子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 민음사

최광식, 1994, 『고대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노용필, 1996, 『신라 진흥왕순수비 연구』, 일조각

김영하, 2002, 『韓國古代社會의 軍事와 政治』,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주보돈, 2002, 『금석문과 신라사』, 지식산업사

나희라, 2003, 『신라의 국가제사』, 지식산업사

김상범, 2005, 『당대 국가권력과 민간신앙』, 신서원

김창호, 2007, 『고신라 금석문의 연구』, 서경문화사

채미하, 2008,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혜안

홍승현, 2009, 『중국과 주변: 중국의 확대와 고대 중국인의 세계인식』, 혜안

최진열, 2011, 『북위황제 순행과 호한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이정숙, 2012, 『신라 중고기 정치사회 연구』, 혜안

한국역사연구회 고대사분과, 2004, 『고대로부터의 통신』, 푸른역사

하워드 J. 웨슬러(임대희 譯), 2005, 『비단길과 주옥같은 정치: 의례와 상징으로 본 당대정치사』, 고즈윈

연구논문

강만길, 1955, 「眞興王碑의 隨駕臣名研究; 黃草嶺碑와 昌寧碑」, 『사총』1

이기동, 1978, 「신라 태조 星漢의 문제와 흥덕왕릉비의 발견」, 『대구사학』 15·16합

김영하, 1979, 「新羅時代 巡守의 性格」, 민족문화연구14

신형식, 1981, 「巡幸을 통해본 三國時代의 王」, 『韓國學報』7-4

이문기, 1982, 「新羅 眞興王代의 臣僚組織에 대한 一考察」, 『大丘史學』20·21합

김창호, 1983, 「신라 太祖星漢 재검토」, 『역사교육논집』5

신종원, 1984, 「三國史記 祭祀志 研究; 新羅 祀典의 沿革·內容·意義를 중심으로」, 『史學研究』

- 정하현, 1985, 「秦始皇의 巡行에 對한 一檢討; 封禪과 祭禮 문제를 중심으로」, 『邊太燮博士 華甲記念史學論叢』, 三英社
- 신종원, 1987, 「「道人」 使用例를 통해 본 南朝佛敎와 韓日關係: 新羅 法興王·振興王代 佛敎를 中心으로」, 『한국사연구』 59
- 신종원, 1990, 「6세기 初 新羅의 犧牲禮」, 『진단학보』 70
- 이도학, 1992, 「摩雲嶺 眞興王巡狩碑의 近侍隨駕人에 관한 檢討」, 『新羅文化』 9
- 이성규, 1993, 「중국 고대 황제권의 성격」, 『韓國史市民講座』 13
- 주보돈, 1997, 「6세기 신라 지방통치체제의 정비과정」, 『한국고대사연구』 11
- 이문기, 1999, 「신라 김씨 왕실의 소호금천씨 출자관념의 표방과 변화」, 『역사교육논집』 23·24합
- 이종태, 1999, 「新羅의 始祖와 太祖」, 『白山學報』 52
- 손환일, 2002, 「新羅 <眞興王巡狩碑>의 書體」, 『선사와 고대』 17
- 이성구, 2002, 「漢武帝時期的 皇帝儀禮; 太一祀·明堂·封禪의 二重性에 대한 검토」, 『동양사연구』 80
- 전덕재, 2003, 「신라의 왕경과 지방, 넘을 수 없는 경계」, 『역사비평』 65
- 김태식, 2004, 「봉선대전, 그 기념물로서의 진흥왕 '순수비」, 『백산학보』 68
- 김영하, 2005, 「新羅 中代 儒學受容과 支配論理」, 『한국고대사연구』 40
- 김성희, 2006, 「북위의 河北 지배와 그 지향」, 이화여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정현숙, 2007, 「北魏 平城시기의 금석문과 그 연원」, 『서예학연구』 10
- 구효선, 2008, 「신라의 境界와 제사」, 『先史와 古代』 28
- 김선민, 2008, 「제국 경략에 미친 고대 순행의 유산; 황제·관료·군대의 대규모 집단여행」, 『동아시아 역사 속의 여행 2』, 산처럼
- 김영하, 2008, 「일제시기의 진흥왕순수비론: '滿鮮'의 경역인식과 관련하여」, 『韓國古代史研究』 52
- 정병섭, 2009, 「한대(漢代) 상서학(尙書學)의 성립(成立)과 정치적(政治的) 의의(意義)」, 『東洋哲學研究』 57
- 朱甫墩, 2009, 「신라 骨品制 연구의 새로운 傾向과 課題」, 『한국고대사연구』 54
- 채미하, 2010, 「신라의 軍禮 수용과 王權」, 『한국사연구』 149
- 최진열, 2010, 「唐代 皇帝 巡幸의 성격; 巡幸 빈도·기간·장소·활동의 통계적 분석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72
- 최진열, 2011, 「唐前期 皇帝 巡幸의 隨行官員과 都城 留守」, 『서강인문논총』 30
- 이미란, 2012, 「6세기 전후 신라 道使의 파견과 지방의 출현 과정」, 『역사와 경계』 85
- 이순태, 2012, 「<迎日冷水里新羅碑>의 書風 연구」, 『서예학연구』 20
- 홍승현, 2012, 「전한시기(前漢時期) 상서학(尙書學)의 출현과 변용」, 『中國學報』 65
- 이성배, 2013, 「6세기 신라 眞興王巡狩碑의 立碑와 書藝的 考察; 書體의 同異를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65
- 조범환, 2013, 「眞興王巡狩碑에 대한 몇 가지 疑問과 새로운 理解: <北漢山碑>·<黃草嶺碑

>·<磨雲嶺碑>를 중심으로, 『新羅史學報』27

임평섭, 2014, 「신라의 산천제사와 진흥왕 순수비 입석 목적의 연관성: 북한산비를 중심으로
살펴본 巡狩 행적에서의 祀」, 『新羅文化』43

최영성, 2014, 「진흥왕순수비의 재검토」, 『民族文化』43

罗新, 2005, 「跋北魏太武帝东巡碑」, 『北大史学』11, 北京大学出版社